

# “한·미FTA 여야 은밀한 협력 중요”

## 李 대통령 “핵 포기 도움 된다면 北-美 정상회담 좋은 일”

###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美 자동차 산업 회생 한국에도 도움”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가 악화하면(북미 정상회담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자는 미국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한국이 소위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은 현상에 있을 때나 그렇지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 뒤에는(한미간) 철저한 공조가 됐다”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오바마 당선인은(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든 어떻게 한국과 철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 중심에 있다”며 “오바마 당선인 본인이 먼저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한미간에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에 언급, “미국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망을 짜는 등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

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자들의 수출이 늘고, 또 (설령)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된다 해도 한국 자동차를 수출할(특수시장)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사는 게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FTA에도 지장이 안된다. 언론이 앞질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문했다.

한미FTA의 선(先) 비준동의의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절차만 놓고 볼 때 미국은 의회가 질문권한이 없고 가부투표만 하도록 돼 있는 ‘패스트 트랙(신속협상권)’ 제도가 있고, 우리는 23-24개의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과 패스트 트랙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패스트 트랙 절차가 없었지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회도 너무 여야간에 공개적으로

먼저 떠드는 것보다 ‘은밀한’ 협력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현재로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부의 여야 협력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가 때 아당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런 때(야당)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의 여야 협력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가 때 아당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런 때(야당)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의 여야 협력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가 때 아당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런 때(야당)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의 여야 협력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가 때 아당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런 때(야당)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오전) 미국 워싱턴 시내 숙소인 힐튼 호텔에서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미FTA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오바마 백악관 진용 “역시 부시와 다르네”

### 경험 풍부한 ‘의회통’ 대거 발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백악관 비서실의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는 16일 성명을 통해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피터 라우스를 백악관 수석고문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라우는 톰 대슬 전 상원의원을 보좌한 바 있다. 또 짐 메시나, 모나 섯픈(Sutphen)은 각각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으로 내정됐다.

세 사람은 모두 오바마 정권인수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메시나는 막스 보카스(몬테나), 바이런 도건(노스 다코타) 상원의원 등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미 국무부 관련을 지낸 섯픈은 국제전략문제 자문회사인 스톤브리지 인터내셔널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랩 이매뉴얼 하원의원을 일찌감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오바마는 앞서 오랜 친구이자 참모인 발레리 재럿을 백악관 정부관계 보좌역에 지명했다. 또 헨리 왓슨 미 하원 정부개혁특별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필립 실리를 수석 의회 연락관으로 발탁했다.

이 밖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으로 클린턴을 변호했던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가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내정됐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백악관 비서실 새 진용의 얼굴들을 보면 금융위기 등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오바마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 통신은 오바마가 정부와 의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과 측근인 ‘시카고 사단’으로 백악관 비서실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의 이런 선택은 의회를 다루는데 사실상 경험이 전무했던 ‘텍사스 사단’에 크게 의존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조된다. A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 30대에 클린턴 정부 백악관 경제자문 실장 맡아

### 오바마 인수팀 유일한 한국계 오드리 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를 위한 정권인수위에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오드리 최(40·여·사진) 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당선인 측이 지난 14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 내 ‘정부 점검팀’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실 실장을 맡았던 한국인 2세인 최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최씨를 환영했다.

최씨는 클린턴 정부 시절의 ‘전공’을 살려 이번 오바마 인수위에서도 ‘대통령직 행정사무실’ 내의 경제자문위원회 팀장을 맡게 됐다.

최씨는 백악관 근무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 윌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제시각 및 국제 감각, 모건 스탠리에서 얻은 금융지식 등이 높이 평가돼 인수위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성장한 최씨는 하버드대에서 문학을 전공했으며,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독일에서 동·서독의 페미니스트 문화를 공부했다. 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윌스트리트 저널의 독일 특파원을 지냈다.

최씨는 불과 30세 전후의 나이



에 앨 고어 전 부통령의 국내정책 자문과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실 실장이 라는 경력에 쌓았다.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했던 최씨는 외교관인 남편 로버트 오어(46)와 지난 2000년 결혼했다. 어머니 최숙철(69) 씨는 작가로 유명하다. 평양출신인 어머니는 역사와 과학 논란을 불러일으킨 ‘오코 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아 ‘매나보’ 수 없는 세월이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연합뉴스

#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 바라 봐야” 李 대통령 세번째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17일 세번째 라디오 연설은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녹음됐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최근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에서 육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직접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비상한 각오로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소개한 뒤

“한 정상에게 정부가 취하는 위기대책에 대해 내부의 반대는 없느냐고 묻자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한가롭게 여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위기극복을 위해 총선까지 연기했고,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가 됐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등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비판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숲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높은 것을 찾아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 안의 시각으로부터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 남미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경제인 오찬간담회, 동포리셉션, 상파울루 주지사 초청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진 뒤 수도인 브라질리아로 이동,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브라질 상·하원 의장과 만담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페루를 방문,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같은 곳에서 22-23일 열리는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 뒤 26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 11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10월 3·4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에 비해 0.1%(연율 환산 0.4%) 감소,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표로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분기 기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미국의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영향으로 지난 2001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후 약 7년만에 처음이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이번 수치는 수출이나 개인 소비, 설비투자 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7%(연율 3.0%) 감소할 4~6월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폭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3·4분기의 경우 이 기간 개최된 베이징올림픽 등으로 인해 개인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낙관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EU 車업계 500억弗 지원

유럽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EU)이 최근 400억유로(미화 500억달러 가량)의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머지않아 가동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운은 미국이 앞서 승인한 ‘클린카’ 프로젝트 지원 250억달러 외에 같은 규모로 자금 자동차 업체를 신용 지원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투자은행이 창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망과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법률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정대 입원정 앞)**

---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중앙동	154/416	1493000만	798000만	상가·오피스텔
우산동	727/1431	6792000만	47억	지정주택·연립·콘도
우산동	188/193	1098000만	599000만	노년주택
중앙동	146/400	1294000만	791000만	상가·사무실
용봉동	137/223	891000만	395000만	상가·사무실
안산동	362/893	4194000만	2895000만	금융·의원·학원
문안동	1139/1959	11191000만	6292000만	병원
누전동	40/34	499000만	294000만	수정초교·간·편리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서평아파트
중앙동	414/58.6	1946000만	8380만	2층·다세대·연립
우산동	47.8/39.7	1922210만	8550만	2층·유선·연립
신안동	67.5/50.9	293150만	198200만	국영·연립·다세대
용봉동	150/20	7800만	7800만	희망아파트
회동	66.9/46	194100만	6320만	2층·속·상·연립
왕곡동	176/87	4900만	2700만	구신마을내
금곡동	116/56	194000만	8200만	매일시장안
중앙동	246/39	8300만	8300만	상산마을내
고서동	166/81	196500만	7400만	상산마을내
금곡동	101/34	1억	7000만	정성문사문안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새마을개발지역

**▶오피스텔/다세대**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차평동	11.8	8000만	4480만	구영동아파트 4층
차평동	47.4	3930000만	199480만	투진아파트 2층
회동동	13.7	8800만	4820만	동림 8층
차평동	8.8	5500만	3850만	수일 7층
수주동	9.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용봉동	44.9	2억	194000만	우등·유선·투진 2층
신안동	25.8	194300만	8000만	그린빌 4층

**▶동거민편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동	439/222	9440만	4230만	동산·3F·도로점
명곡동	382/226	195000만	195000만	주변·상·상·대·도로점
문곡동	738/410	2946000만	194000만	속·사·도로점
우산동	720/233	191000만	7720만	유선·유선·4F·도로점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백운동	주공단지	4층	32	9000만	6300만
신안동	한양	6층	24	191000만	7700만
우산동	경남	11층	24	7500만	5250만
건일동	대덕	7층	25	8900만	4200만
회동	금호백석빌	18층	47	298000만	198800만
회동동	우미	16층	32	192500만	8750만
내일동	해대	2층	32	191000만	7700만
문곡동	한신아파트	7층	59	392000만	292400만
두산동	이로보	6층	32	8300만	5810만
대곡동	서강로보	8층	24	4800만	3430만

**▶토지**

소재지	종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왕곡동	답	1004	3600만	2020만	주인동아파트안
금곡동	구수원	2600	991000만	694000만	금곡문사문안
관산동	답	907	6600만	4620만	연서마을안
본곡동	전	558	191000만	6540만	미국마을내
곡동	전	591	397000만	296000만	평동농협안
중앙동	답	506	2000만	1410만	서평마을안
명곡동	답	2283	6870만	4810만	용봉마을안
명곡동	답	478	1580만	1110만	이명마을안
대곡동	구수원	1362	8200만	4600만	가림마을안
봉곡동	답	810	4290만	4290만	송정서주지안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명곡동	1444/690	10935000만	7925000만	할산초20년
문곡동	634/185	1195000만	6945000만	이명마을안·지리현정
명곡동	1282/706	12924000만	6985000만	공영·공영·2차
명곡동	9185/179	15959400만	10921600만	해·문·100㎡도로점
회동동	1816/498	6975200만	4972700만	문곡마을내

---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중앙동	대154/2416	감정가4억4천	최저가1억8800만	오피스텔/연립3개
용봉동	대138/2523	감정가16억2000만	최저가13억4700만	식당·사무실
오차동	대152/2588	감정가16억6000만	최저가13억3000만	5층상가/대로변
산양동	전용면적30	감정가15억7000만	최저가13억1000만	근린상가/8층형
문수동	대305/2223	감정가18억2100만	주유소·주차	주유·세차
인행동	대1000/23835	감정가15억2000만	최저가10억8400만	공장/하남공단내

장성읍 소재, 옛 삼양제사를  
새로이 재건축한 아파트형 공장

삼양과 자연 (주)

## 푸른산 테크빌

160평~820평 규모의 11개 개별 공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조 및 서비스업체,  
임대사업자 투자 환영!

### 분양/임대개시<푸른산테크빌>

▶ 문의/연락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명천리 738 Tel: 061-393-2901/3, 393-7855/7  
 Fax: 061-393-2230 E-mail: samyangnatur@naver.com www.bluemountainvil.com

**사원모집**

**모집인원**  
임대/분양 영업직 및 사무직 0명

**응모자격**  
부동산 임대/분양 영업활동 경험자가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간판 자기소개서 포함)···1부  
주민등록등본·····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제출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08년 11월 30일까지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  
(마감일인도착분 한)